

보도시점 2023. 5. 3.(수) 17:00 배포 2023. 5. 3.(수) 17:00

기술이 당겨올 농림수산업의 미래를 논하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미래기술특별위원회」 위촉식 개최 -

<사례1> 딸기 재배틀 사이에서 로봇이 수확 작업을 시작한다. 좌우 카메라로 색상을 구분해 익은 걸 찾고 다른 카메라는 높이와 거리를 파악한 뒤 설익은 걸 빼고 정확하게 목표 딸기를 잘라낸다. 로봇은 수확뿐 아니라 크기와 성숙도 등 딸기 성장단계 모니터링을 하기도 하고 선별과 포장까지 할 수 있다.

<사례2> “드드드드르르륵-” 파종기가 지면을 향해 씨앗과 함께 비료를 발사한다. 1초에 30개의 씨앗을 발사함과 동시에 필요한 만큼의 소량의 비료만 뿌려 파종기 비료를 기존 대비 60% 이상 절감할 수 있다. 농촌 인력이 감소하고 있지만 농기계의 발전으로 생산성은 향상되었다.

두 사례는 소설이나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모두 이미 우리 곁에 도달한 미래기술이다. 첫 번째 사례는 미국 "JORDI사(社)"가 충남 홍성 딸기농장에 설치한 로봇 기반 자동화 온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 "JOHN DEERE사(社)"가 CES 2023에서 선보인 파종기 ‘이그젝트샷’이다. 기후변화와 경제활동인구 감소의 시대에 농림수산 기술의 개발과 적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업계가 마주한 현실이다.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농어업위, 위원장 장태평)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기술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5월 3일 위촉식을 개최하였다.

농어업위는 분야별 현안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 현재 미래수산특별위원회, 미래산림특별위원회, 미래신산업특별위원회 총 3개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이번 미래기술특별위원회(이하 기술특위)는 2023년에 구성된 농어업위의 4번째 특별위원회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미래기술특별위원회는 농림수산분야 기술뿐 아니라 기계공학, 금융공학, 정보통신, AI 등 타 분야의 다양한 기술트렌드를 공유하고, 실제 산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논의하게 된다. 특히 기술특위는 농어업위 내 타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 대비 운영 상 자율성을 부여받고, 자생적인 전문가 네트워크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자체 포럼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위원장으로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농촌진흥청장을 역임한 세종대학교 민승규 석좌교수를 위촉했다. 또한 업계(5), 학계(3), 연구계(2), 정부(3), 언론(1)계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하여 농림수산분야 기술 아젠다를 리딩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미래기술 논의의 장(場)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태평 농어업위 위원장은 “미래기술특별위원회 출범을 통해 농림수산분야 미래상(像)을 그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이번 기술특위를 계기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교류하고, 이를 통해 첨단 기술이 농림수산업에 다각도로 접목되어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사진은 보도자료 외 별도의 원본 파일 첨부

담당 부서	농수산식품팀	책임자	팀 장	도윤정 (02-6260-1231)
		담당자	사무관	김 환 (02-6260-1232)

